

---

# 소비자본, 문화자본과 문화산업 기술추격: 문화산업 기술추격의 경제이론

옥성수\*

---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 모델
- III. 소비자본과 기술추격
- IV. 요약 및 결론

**국문초록** :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문화산업콘텐츠 수출이 증대되는 “한류” 현상이 대두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산업 무역이론은 이러한 후발국으로부터 문화상품의 수출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소비자본이 기호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합리화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ationalize), 본 연구는 공식모델의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어 : 기술추격, 소비자본, 문화자본, 문화상품, 문화할인율

# I. 서론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문화산업콘텐츠 수출이 증대되는 “한류” 현상이 대두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류”는 일차적으로는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게임,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지역 면에서도 아시아지역을 필두로 점차 유럽, 남미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한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배경이 되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근원에 대한 규명이 우선적인 학문적 관심사로 대두된다. 그러나,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무역수지 개선” 혹은 “기술추격”이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가로막는 일차적인 장애물이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합리화하는 정식 이론모델을 제시하고(rationalize), 그 모델 속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설명하는 변수가 “한류”를 설명하는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근원에 대한 접근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무역에 관한 연구는 별로 축적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이론은, 문화상품 수출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한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Krugman(1979)이 산업내무역의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기술 및 부존자원의 차이를 대체하여 국제적인 분업과 무역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는 영화, 음악 등 문화상품이 주로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Marvasti(1994)는 서적과 필름산업에서의 무역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Krugman(1979)의 산업 내 무역이론이 예견하는 바처럼 문화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의 이점으로 인하여 영미권 선진국에서 비영어권 후발국으로 향하는 문화상품 무역의 비대칭성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덧붙여 며, Schultz(2003)는 규모의 경제, 문화적 할인율, Becker(1996)의 소비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 무역의 비대칭성이 확립되고 고착되는 전형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

1)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무역수지 개선”과 “기술추격”을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의 진행과 더불어 설명될 것이다.

2) Scgultz(2003), p.270 참조.

“..... 문화예술의 교역은 문화적 근접성(proximity)과 정(positive)의 함수관계에 있으며, 현재의 교역은 과거교역에 대한 정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교역 패턴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복제형 문화산업에서는)... 산업적 차원에서 지역적인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다. 이것이 헐리우드 혹은 볼리우드(Bollywood, Bombay), 즉 한 나라에서 한 장소에 영화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세계영화시장에서 미국영화가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은 문화상품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문화할인이 양방향으로 작용하여 자국의 필름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선호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더 많은 판매를 하게 된다.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이러한 효과는 큰 나라의 필름산업이 가격을 낮추거나 고정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한다. 어느 쪽이건 큰 나라는 경쟁력을 더 획득하게 되고 외국 필름이 자국시장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더한 시장침투(penetration)를 누리게 된다. 외국시장에서의 시장침투는 (문화)소비자본을 축적하여 문화할인율을 낮추게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미국의 필름이 유럽 문화의 일부가 될 때 까지 계속된다. 반대방향의 반응은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필름의 거래는 아마도 일방통행적인 속성이 있다.”

이러한 이론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의 문화상품 무역도 대외시장 개방이후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문화상품에서 한국이 내수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유독 한국의 문화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한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 기술추격에 유리한 특수한 조건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상품 기술추격 이론을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Schultz(2003)가 제기한 동태적인 문화산업 무역이론을 확장하고 일반화하여 정식모델을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chultz(2003)는 명시적인 이론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Becker(1996)의 소비자본이 수입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용만 주목하여 “반대방향의 반응은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필름의 거래는 아마도 일방통행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 결과 “한류”와 같은 후발국의 문화상품 수입대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3)</sup> 그

러나,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Becker(1996)의 소비자본이 일종의 인적자본이라는 점이다. Becker(1965)는 개인의 효용함수가 투입되는 상품(goods)과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투입하는 시간(time)에 의존하는 일종의 결합생산함수에 기반한 효용이론을 주창한 바가 있는데, Becker(1996)의 소비자본은 이러한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본은 개별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결합하여 소비하는 상품과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한계효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사회적 략에서 이해하면 Becker(1996)의 소비자본은 Schultz(2003)가 가정한 바처럼 단순히 습관형성(taste formation)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본을 보유한 개인이 생산력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Becker(1996)의 소비자본을 습관형성의 매개이자 생산력 향상을 가져오는 인적자본 축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소비자본이 생산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명시적으로 생산함수에 연결하여 설정함으로써 문화산업에서 수입국의 기술추격과 내수회복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구명(rationalize)하였다.

문화산업은 생산요소 중에 인적자원 의존도가 크며, 지식활동의 흡수형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며,<sup>4)</sup> 초기투자비용에 비하여 한계생산비가 매우 낮아 규모의 경제와 차별적 독점이 지배적인 시장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러한 소비자본-인적자본의 연결이 문화산업의 기술추격과 무역행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문화상품의 수입개방에 의한 초기 문화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적으로 역전될 수 있는 이론적 경로의 설명에 분석의 초점을 집중하므로, 본 연구에서 “기술추격”과 “수입대체”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역수지 개선”은 “기술추격”에 의한 “수입대체”가 소비자본의 증가에 의한 “수요증가”를 능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현재까지 문화상품 무역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류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체험이 생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서비스업에서의 기술추격의 일반모델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3) Scgultz(2003), p.270 참조.

4) 이공래(2002), p.35~42

## II. 이론 모델

### 1. 수요함수

Becker(1996)는 개인의 효용함수가 개인이 소비하는 소비재(goods)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소비재와 결합하여 투입하는 시간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소비함수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호(taste)가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가정하는 바처럼 가변적이 아니고 안정적이며 소비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소비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본(consumption capital)에 의존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sup>5)</sup> 그의 모델이 제시하는 소비자본의 형성이 소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음악, 영화 등 문화상품의 소비와 알콜, 담배, 마약 등 일반적으로 중독(addiction)을 수반하는 소비활동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설명력을 가진다. 중독현상은 다시 장기적인 생산력의 향상과 저하에 따라 문화상품의 소비에서 나타나는 '이로운 중독(beneficial addiction)'과 '해로운 중독(harmful addiction)'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는 '이로운 중독'에 한정된다. Becker(1996)의 이로운 중독 모델을 다소 변형하여 문화상품의 수요함수를 소비자본과 외생변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sup>6)</sup> Becker는 음악에 대한 소비가 소비시간과 소비자본의 함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단순히 소비자본의 함수로 가정한다. 이는 소비자본과 소비시간 및 문화상품의 소비량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목적하는 모델의 직관적인 해석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sup>7)</sup> 단, 수요에는 수입개방 및 일시적 유행 등 수요함수에 외생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 특정한 문화상품의 특정시점(j)의 소비자본을  $S_j$ , 외생변수를  $D_j$ 라고 정의하자.

$$(1) M_j = M_j(S_j, D_j) \text{ 단, } \frac{\partial M_j}{\partial S_j} = \frac{\partial M}{\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M_j}{\partial D_j} = \frac{\partial M}{\partial D} > 0, \text{ for all } j \text{ } ^{8)}$$

5) Becker(1965), Becker(1996), pp.24~49 참조.

6) Becker(1996)는 tny 함수를

7) 이러한 가정의 완화가 주는 의미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8) Becker(1996)에서 M은 시간의 투입요소를 포함하여 생산되고 소비된 문화감상으로서 생산된 서비스의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화상품자체의 수요를 의미한다. 이점에서 본 논문은 Becker(1965, 1996)의 기본적 취지만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본 문화상품 수요함수는 문화상

한편 소비자본은 과거의 수요의 함수로 정의되며, 소비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E_j$ 로 표기한다.  $E_j$ 는 문화적 근접성, 관련 문화교육 등 대상문화상품의 문화할 인율을 감소시키는 모든 영향을 대표한다.

$$(2) S_j = S_j(M_{j-1}, M_{j-2}, \dots, E_j)$$

$$\text{단, } \frac{\partial S_j}{\partial M_{j-v}} > 0, \frac{\partial S_j}{\partial E_j} = \frac{\partial S}{\partial E} > 0, \frac{\partial^2 S_j}{\partial M_{j-v} \partial E_j} > 0, \text{ for all } v.$$

이러한 모델설정은 앞서 인용한 Schultz(2003)의 문제제기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교역은 문화적 근접성(proximity)과 정(positive)의 함수관계에 있으며, 현재의 교역은 과거교역에 대한 정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식(1)와 식(2)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문화상품의 현재의 수요함수( $M_j$ )와 소비자본( $S_j$ )이 외생변수로서 과거의 문화자본과 외생적 정책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M_j = m(D_0, D_1, D_2, \dots, D_j, E_0, E_1, E_2, \dots, E_j)$$

$$(2) 'S_j = s(D_0, D_1, D_2, \dots, D_j, E_0, E_1, E_2, \dots, E_j)$$

## 2. 생산함수

문화상품의 생산함수( $P_j$ )는 전기의 수요와 이번 기의 기술수준의 함수로 정의한다. 생산함수를 전기 수요의 함수로 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의 하나이므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j기의 문화상품 생산 기술수준( $T_j$ )은 전기의 소비자본  $S_{j-1}$ 과 기타 자본의 함수로 표현한다. 이는 문화예술 및 문화상품은 체험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문화상품의 소비는 생산력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은 인적자본이론

---

품과 문화상품 소비시간의 완벽한 보완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가정 하에서도 Becker(1996, p.29)의 문화상품과 일반상품 간의 그림자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은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의 관점이다. 또한 문화상품에 특히 특수한 것은 관련 문화상품의 생산에는 과거의 소비경험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경험이 생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 및 생산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본과 기술 간에 1기간의 시차를 두며, 기술수준의 함수에 명시적으로 자본적 요소를 표시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상품의 생산기술과 관련한 자본은 문화자본( $C_j$ )과 일반자본( $K_j$ )으로 구분하는 점이 본 모델의 특징이다. 문화자본은 Throsby(1999)가 문화유산 등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 자본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안한 개념이다.<sup>9)</sup> 자본과 마찬가지로 문화자본도 소비자본의 기술에 대한 한계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소비자본( $S_j$ )은 특정문화상품의 소비체험으로부터 축적되는 전형적인 인적자본, 일반자본( $K_j$ )은 인력양성과 직업훈련시스템 등을 의미하며, 문화자본( $C_j$ )은 그 사회의 문화유산 및 교육시스템 문자보급률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P_j = P_j(M_{j-1}, T_j) = P(M_{j-1}(S_{j-1}, D_{j-1}), T_j(S_{j-1}, K_j, C_j))$$

$$\text{단, } \frac{\partial P_j}{\partial M_{j-1}} = \frac{\partial P}{\partial M_{-1}} > 0, \quad \frac{\partial P_j}{\partial T_j} = \frac{\partial P}{\partial T} > 0, \quad \frac{\partial^2 P_j}{\partial M_{j-1} \partial T_j} = \frac{\partial^2 P}{\partial M_{-1} \partial T} > 0,$$

$$\frac{\partial T_j}{\partial S_{j-1}} = \frac{\partial T}{\partial S_{-1}} > 0, \quad \frac{\partial T_j}{\partial K_j} = \frac{\partial T}{\partial K} > 0, \quad \frac{\partial T_j}{\partial C_j} = \frac{\partial T}{\partial C} > 0$$

$$\frac{\partial^2 T_j}{\partial S_{j-1} \partial K_j} > 0 \quad \frac{\partial^2 T_j}{\partial S_{j-1} \partial C_j} > 0 \quad \frac{\partial^2 T_j}{\partial K_j \partial C_j} > 0 \quad \forall j.$$

결국 식 (3)이 의미하는 바도 간단히 말하면 문화산업의 생산함수가 외생변수인 과거의 문화자본과 외생적 정책변수 및 기술자본적 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3) 'P_j = p(D_0, D_1, \dots, D_j, E_0, E_1, \dots, E_j, K_0, K_1, K_2, \dots, K_j, C_0, C_1, \dots, C_j)$$

### 3. 무역수지와 기술추격

문화상품의 무역수지( $B_j$ )는 식 (3)에 표현한 바처럼 수요 시장의 규모와 학습에 의존하는 국내생산과 식 (2)에 표현한 것처럼 소비자본과 문화할인율과 무역정책의 의존하

9) Hutter, M. and I. Rizzo eds.(1997) pp.14-15에는 문화유산과 문화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는 시장수요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4) B_j = P_j - M_j$$

이러한 정의 하에서 우리의 관심은  $dB_j > 0$ , 즉, 무역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집중된다. 이러한 조건의 발견은 규모의 경제와 소비자본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초래하는 문화상품의 “일방통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반론이 되며 “한류”의 이론적 합리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식 (2), (3)에서 과거의 수요시장은 시장수요의 확대와 국내생산의 확대에 동시에 작용하므로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 조건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식 (3)에서 “전기의 소비자본( $S_{j-1}$ )”, “문화자본( $C_j$ )”, “자본( $K_j$ )”에 의한 기술추격의 조건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 Ⅲ. 소비자본과 기술추격

#### 1. 수입개방( $D_j > 0$ )과 무역적자

영화산업의 생산이 전혀 없던 후발국의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헐리우드 등 외국의 영화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므로 외국영화의 수입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문화산업이 차별적 독점이며 모든 문화권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수요(demands for exoticism)는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이는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영화의 소비층은 제한적이므로 초기의 소비자본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외국 문화상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가 수입이 개방되어  $D_j > 0$ 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D_j > 0$ 은 개방의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인 변수이지 그 자체가 수입량을 결정하는 양적인 변수는 아니다. 이는 식 (1)의  $\frac{\partial M_j}{\partial S_j} > 0$ 의 가정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상의 가정에 부합하는 각 변수들의 시기별 부호는 아래와 같다.

$$i) S_j = S_{j-1} = 0$$

$$ii) M_{j-1} = M_{j-2} = \dots = M_0 = 0$$



iii)  $C_j = C, K_j = K$ , 즉 상수이다.

iv) 단,  $D_{j-1} = 0, D_j = D_{j+2} = \dots > 0$  를 가정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수입개방의 시점(j)에는 무역적자가 실현된다. 즉, 수입개방된 문화상품의 국내수요( $M_j$ )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하여 충족되며 즉각적인 국내생산( $P_j$ )에 의한 수요의 흡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B_j$ ).

$$(5) \quad dM_j = \frac{\partial M}{\partial S} dS_j +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M_j > 0 \quad (\because dS_j = 0)$$

$$(6) \quad dP_j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1} + \frac{\partial P}{\partial T} \left[ \frac{\partial T}{\partial S_1} dS_{j-1} + \frac{\partial T}{\partial K} dK_j + \frac{\partial T}{\partial C} dC_j \right] = 0$$

$$(7) \quad dB_j = dP_j - dM_j < 0$$

## 2. 소비자본과 기술추격

수입개방 이후 소비자본의 형성은 문화상품의 수입을 확대하지만 소비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내생산도 증대시킨다. 그러나 전체적인 효과로서 해당 문화상품의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무역수지의 개선은 제 1기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제 2기 이후 무역수지의 개선은 기술추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간별로 무역수지와 기술추격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1.1 제 1기의 무역수지 개선 조건

#### 1.1.1 문화상품 수요와 생산의 증가

본 모델에서 수입개방 직후 (t+1기에) 문화상품의 수요와 국내생산의 증가는 분명하게 발생한다. 이는 아래 식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식 (4)가 제시하는 바, 국내 생산 증가와 수요 증가의 차이로서 문화상품 무역수지의 개선 혹은 악화여부의 결정은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한다.

$$(8) \quad dP_{j+1}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dS_j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P}{\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0$$

$$(9) \quad dM_{j+1} = \frac{\partial M}{\partial S} dS_{j+1} + \frac{\partial M}{\partial D} dD_{j+1} = \frac{\partial M}{\partial S} dS_{j+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0$$

### 1.1.2 (t+1)기 무역수지 개선의 조건

따라서 (8), (9)에서 (t+1)기에서 무역수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초기의 시장 확대에 의한 생산축진이 초기의 시장 확대에 의한 소비자본의 형성을 통한 시장 확대 유발을 능가하면 무역수지는 개선된다. 초기의 시장 확대에 의한 다음기의 시장 확대는 시장규모 변화가 1기간에 걸쳐 소비자본을 형성하는 정도 ( $\frac{\partial S}{\partial M_{-1}}$ )와 소비자본의 확대의 시장수요 확대에 대한 한계기여( $\frac{\partial M}{\partial S}$ )에 의존한다.

$$(10) \quad dB_{j+1} = dP_{j+1} - dM_{j+1} = \frac{\partial P}{\partial M_{j-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0$$

$$(11) \quad \frac{\partial P}{\partial M_{-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 1.2 제 2기의 기술추격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조건<sup>10)</sup>

(t+1)기의 무역수지 개선조건은 그 이상의 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계산과정을 통하여 보여 질 수 있다.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부록>에 별도로 첨부한다.

### 1.2.1 2기 문화상품 무역수지 개선 조건 도출

<부록>의 계산식을 참조하면 (j+2)기의 국내생산 증대와 국내 시장 규모의 확대는 다음의 식 (12) 및 식(13)과 같이 보여 질 수 있다. 즉, 문화상품의 j기의 수입개방 조치로 인한 시장 확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국내생산의 증대를 유발한다. 그 두 가지 경로는 모두 그것은 차기(t+1)의 소비자본 형성을 통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기술추격과 생산증대를 가져오며( $S_{j+1} \rightarrow T_{j+2} \rightarrow P_{j+2}$ ), 다른 한편으로는 차기의 소비자본 증대를 통한 시장 증대를 통한 생산 증대를 통하여 국내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S_{j+1} \rightarrow M_{j+1} \rightarrow P_{t+2}$ )

한편, 문화상품의 j기의 수입개방 조치로 인한 시장 확대는 다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j+2)기의 문화상품 내수시장을 확대시킨다. 그 하나는 2 기간의 차이를 통한 소비자본

10) 자세한 풀이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의 증대가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M_j \rightarrow S_{j+2} - M_{j+2}$ ), 다른 하나는 (j+1)기의 소비자본 증대에 대한 영향이 (j+1)기의 시장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j+2)기의 소비자본을 증대시켜 (j+2)기의 시장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M_j \rightarrow S_{j+1} \rightarrow M_{j+1} \rightarrow S_{j+2} \rightarrow M_{j+2}$ ).

$$\begin{aligned}
 dP_{j+2} &= \frac{\partial P_{j+2}}{\partial M_{j+1}} dM_{j+1} + \frac{\partial P_{j+2}}{\partial T_{j+2}} \frac{\partial T_{j+2}}{\partial S_{j+1}} dS_{j+1} \\
 (12) \quad &= \frac{\partial P_{j+2}}{\partial M_{j+1}} \frac{\partial M_{j+1}}{\partial S_{j+1}} \frac{\partial S_{j+1}}{\partial M_j} \frac{\partial M_j}{\partial D_j} dD_j + \frac{\partial P_{j+2}}{\partial T_{j+2}} \frac{\partial T_{j+2}}{\partial S_{j+1}} \frac{\partial S_{j+1}}{\partial M_j} \frac{\partial M_j}{\partial D_j} dD_j \\
 &= \left( \frac{\partial P_{j+2}}{\partial M_{j+1}} \frac{\partial M_{j+1}}{\partial S_{j+1}} \frac{\partial S_{j+1}}{\partial M_j} + \frac{\partial P_{j+2}}{\partial T_{j+2}} \frac{\partial T_{j+2}}{\partial S_{j+1}} \frac{\partial S_{j+1}}{\partial M_j} \right) \frac{\partial M_j}{\partial D_j} dD_j \\
 (13) \quad dM_{j+2} &= \frac{\partial M_{j+2}}{\partial S_{j+2}} dS_{j+2} + \frac{\partial M_{j+2}}{\partial D_{j+2}} dD_{j+2} = \frac{\partial M_{j+2}}{\partial S_{j+2}} dS_{j+2} \\
 &= \frac{\partial M_{j+2}}{\partial S_{j+2}} \left( \frac{\partial S_{j+2}}{\partial M_{j+1}} \frac{\partial M_{j+1}}{\partial S_{j+1}} \frac{\partial S_{j+1}}{\partial M_j} + \frac{\partial S_{j+2}}{\partial M_j} \right) \frac{\partial M_j}{\partial D_j} dD_j
 \end{aligned}$$

식 (4)의 무역수지 조건에 (12)와 (13)을 대입하면 소비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전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가능한 기술추격에 의한 무역수지개선의 조건은 다음 식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begin{aligned}
 (14) \quad dB_j &= \frac{\partial P}{\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frac{\partial S}{\partial M_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M}{\partial S_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2} \\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left( \frac{\partial P}{\partial M_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M}{\partial S_1} \right) + \left(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frac{\partial S_1}{\partial M_2}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2} \right) > 0
 \end{aligned}$$

식 (14)에서 보는 바처럼 소비자본이 연계하는 문화상품 무역수지의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항목으로 분해된다. 그것은 1) 전기의 수요에 대한 생산 반응과 전기의 소비자본 형성이 급기에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효과와의 상대적 비교, 2) 2기 전의 수요가 관심 시점의 생산증가에 기여하는 바와 2기 전의 수요변화가 현재의 수요변화에 기여하는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이다.

### 1.2.2 2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의 일반 조건

이상에서 유추할 때 (14)의 조건은 일반조건으로 손쉽게 확장될 수 있다. 각 이전 기별 시장의 확대는 생산의 확대와 대응된다. 따라서 제 1기에 (11)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2기 이상을 격하는 기간에서 시장의 확대가 생산의 확대를 유발하는 효과의 누적이 1기 이전의 수요증대로 인한 급기의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 효과를 능가하면 2기

이후에 무역수지의 개선은 일어 날 수 있다.

### 1.2.3 정책적 함의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상품의 기술추격과 무역수지 개선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문화상품에서 기술의 생산성( $\partial P/\partial T$ )과 더불어 기술전환율( $\partial T/\partial S-1$ )이다. 그런데 기술전환율( $\partial T/\partial S-1$ )은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크기에도 매우 의존한다. 이것이 한류에 대한 본 모델의 중요한 시사점의 하나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 의한 문화산업의 집중화’를 극복하는 “한류”가 관찰되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인하여 잘 축적된 문화자본도 일조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짐작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자본과 관련한 기술전환율과 기술생산성을 제고 하는 정책은 문화산업의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분석은 본 논문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될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문화산업의 성공 “한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의 핵심은 문화상품 소비체험이 한편으로는 무역수지 확대를 심화하기도 하지만 소비체험으로부터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내부적 기술추격 경로가 효율적인 경우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 문화상품의 무역수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정시점이 경과한 이후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중요한 특징인 소비자본의 존재가 수요함수와 생산함수에 걸쳐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식모델의 수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비교정태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현상이 대두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류”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낮은 문맹률과 문화유산 등 문화자본의 축적이 문화상품 기술추격, 즉 “한류”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은 본 연구모델의 강건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보인다.

본 논문의 이론적 설정이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는 의외로 많다. 이 점은 본 논문이 문화산업 무역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영화산업의 초기에 미국시장은 프랑스, 이태리 등에 크게 점유당하고 있었으나 점차로 내수시장을 회복하여 세계시장의 지배적인 수출국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리고, 영

국의 영화산업은 미국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미국영화의 잠식이 특히 심하다는 것도 모델의 해석이 미치는 범위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은 이론모델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수요함수는 단순히 수입시장개방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외국 문화상품의 영향 등으로 변형되어 그 특성에 맞추어 발전될 수 있으며, 문화적 근접성, 체험교육 등의 영향과 문화자본, 직업훈련 등을 의미하는 변수도 이론모델에 개념설정만 되어 있을 뿐이다. 각 변수들은 그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문화상품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 기술추격에 관한 연구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그 간의 기술추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기술발전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급진적인 도약(leapfrogging)을 하는 것을 지구화와 정보기술(IT) 발달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관점조차도 문화산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에서 기술 및 제품 수명 주기를 논하기 어렵다. 우선, 문화 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기계 및 부품)의 수입 및 관련 기술의 도입 소화 흡수가 제조업에서와 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둘째 외국 지식의 습득과 소화 흡수를 통한 추격 모델의 경우도 한계점이 있다. 국내에서의 문화 상품은 국내 문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므로 응용 및 변형이 생산과정에 본질적이다.

셋째 수출을 통한 기술 추격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및 음반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제조업에서와 같이 외국 시장을 겨냥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

본 논문이 문화산업의 기술추격 이론의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의 기술추격이 이루어진다는 측면과 문화산업에서 소비자본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의 기술추격에서 프로슈머의 존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문화산업에서 사용자 혹은 고객이 기술능력의 축적에 관련하는 바는 제조업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단지 소비자본과 인적자본과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단순 반복적이며

---

11) Lee and Lim(2001) 참조

도출과정을 통하여 한류의 이론모델을 합리화하고(rationalize) 있으며, 그 결론은 의외로 자명하다. 그러한 간명함이 본 논문의 최대의 장점이다. 최소한의 가정을 통하여 본 논문은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본 논문의 간명성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 및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순수이론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내수시장의 크기, 시장개방의 시기, 기술추격의 전략, 국제적 협약에 따른 문화산업의 장기적 성장의 조건과 관련지어 다양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화산업분야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반적으로 작용하며, 적절한 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므로 직접적인 실증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화작업을 통하여 소비자본의 형성이 내수시장의 확대와 국내생산의 확대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변형을 통하여 관련 주제의 실증분석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정책적 실험과 그에 따른 영향의 추적을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길을 열고 있다. 본 논문은 막연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던 문화상품의 기술추격에 대한 논의의 상승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모델의 간명성은 서비스산업을 위시한 다양한 산업에 일반적인 모형으로 발전되고 실증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sup>12)</sup>

---

12) 모든 상품의 소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본의 형성이 따른다. Becker(1965)를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육성수, 임채성(2006), “문화산업 한류의 경제모델—문화산업 무역과 기술추격의 경제이론”,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 이콜래(2002)m 『한국의 지식클러스터 실태분석』, 과학기술부.
- Acheson, Keith and Maule, C.J.(1994), “International Regimes for Trade, Investment, and Labour Mobility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 Rutg Towse(ed.), *Cultural Economics: the Arts, the Heritage and Media Industries*, Edward Elgar, London.
-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LXXV(299) (September)
- Becker, G.S.(1996), *Accounting for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tter, M. and I. Rizzo eds.(1997), *Economic Perspectives on Cultural Heritage*, Macmillan Press LTD.
- Keun Lee, Chaisung Lim(2001), Technological regimes, catching-up and leapfrogging: findings from the Korean industries, *Research Policy* 30, pp.459-483.
- Krugman(1979),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 469-479.
- Marvasti, A.(1994), International Trade in Cultural Goods: A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8: 135-148.
- Marvasti, A. and Canterbery, Ray (1992) ‘Intra-Industry Trade in Cultur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Association Proceeding*, 159-174.
- Schulze, G. (1999), “International Trade in A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 109-136.
- Schulze, G. (2003), “International Trade”, In *A Hand Book of cultural Economics*, ed. R. Towse, Edward Elgar, 269-275.
- Throsby(1999), Cultural Capita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 3-12.

□ 투고일: 2009. 02. 26 / 수정일: 2009. 06. 16 / 게재확정일: 2009. 06. 20

---

Consumption Capital, Cultural Capital and Technology  
Catch-up in Cultural Industries:  
An Economic Model of Catch up in Cultural Industries

Sung-Soo Ok

---

**Abstract** : Since second half of 1990s, Korean “Han-Ryu” focuses international attention, which means Korean cultural industries increase their exports. However, traditional theories of international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could not explain this phenomenon of increasing cultural goods from developing countries. Using the fact that Becker(1996)’s ‘consumption capital’ can increase productivity in cultural industries as well as contribute to form ‘taste’ for new cultural goods. This study suggests the proper conditions for catching-up of developing countries in cultural industries through comparative statistics.

Key Words : Technology Catch-up, Consumption Capital, Cultural Capital,  
Cultural Goods, Cultural Discount



## <부록>

$$M_j = M_j(S_j, D_j)$$

$$\begin{aligned} dM_j &= \frac{\partial M}{\partial S} dS_j +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M_j \quad (\because M_{j-1} = 0) \end{aligned}$$

$$\begin{aligned} dM_{j+1} &= \frac{\partial M}{\partial S} dS_{j+1} + \frac{\partial M}{\partial D} dD_{j+1} = \frac{\partial M}{\partial S} dS_{j+1} =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quad (dD_{j+1} = dD_{j+2} = dD_{j+t} = 0) \end{aligned}$$

$$\begin{aligned} dM_{j+2} &= \frac{\partial M}{\partial S} dS_{j+2} + \frac{\partial M}{\partial D} dD_{j+2} = \frac{\partial M}{\partial S} dS_{j+2} \\ &= \frac{\partial M}{\partial S} \left(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 \frac{\partial S}{\partial M_{-2}} \right) \frac{\partial M}{\partial D} dD_j \end{aligned}$$

$$dS_{j+1} = \frac{\partial S}{\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S}{\partial E} dE_{j+1} = \frac{\partial S}{\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begin{aligned} dS_{j+2} &= \frac{\partial S}{\partial M_{-1}} dM_{j+1} + \frac{\partial S}{\partial M_{-2}} dM_j + \frac{\partial S}{\partial E} dC_{j+2} \\ &=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frac{\partial S}{\partial M_{-2}}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 \left(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 \frac{\partial S}{\partial M_{-2}} \right) \frac{\partial M}{\partial D} dD_j \end{aligned}$$

$$P_j = P_j(M_{j-1}, T_j) = P(M_{j-1}(S_{j-1}, D_{j-1}), T_j(S_{j-1})) ,$$

$$dP_j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1}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dS_{j-1} = P_j = 0$$

$$dP_{j+1}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dS_j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 = \frac{\partial P}{\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P_{j+1} > 0$$

$$\begin{aligned} dP_{j+2} &= \frac{\partial P}{\partial M_{-1}} dM_{j+1}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dS_{j+1} \\ &= \frac{\partial P}{\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 \frac{\partial P}{\partial T} \frac{\partial T}{\partial S_{-1}} \frac{\partial S}{\partial M_{-1}} \frac{\partial M}{\partial D} dD_j \end{aligned}$$